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나의 길’ 찾기에 관한 생애사 연구

박혜영*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조교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삶을 생애사 연구 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S와 K시에 거주하는 7명의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Mandelbaum이 제시한 생애사 연구의 3개 차원 즉,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 대부분은 어머니, 선생님, 그리고 음악 단체를 중요한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꼽았고, 전환점에서는 음악 선택이 그들로 하여금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한 핵심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가 아니라 음악가이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여성이 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그들의 삶의 적응 전략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 즉, '음악을 통한 나의 길 찾기'를 이루는 데에 교육적, 사회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 생애사, 만델바움, 음악 활동

* 주저자 (legendphy@kosin.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각은 지적,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감각이므로, 시각이 손상된 시각장애인은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사회적 삶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Jessup, Cornell, & Bundy, 2010). 더욱이 시각장애인은 주위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관찰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araigordobil & Bernaras, 2009).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또 장애인으로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적 및 경제적 기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 소외되기 쉬운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김성희, 2018).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의해 기회 박탈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같은 부정적 경험은 열등감이나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홍승아 외, 2009).

특히,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여성시각장애인 가운데 다수는 타 장애 유형의 여성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제약과 소외를 겪고 있다(황령희, 2003). 남성장애인들은 대체로 장애의 원인을 외적 환경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여성장애인은 주로 환경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자기평가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성은, 2009). 또한 여성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문화를 누리고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헤어스타일과 의상 및 다양한 액세서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준환, 이순중, 2007). 신체적 장애가 여성시각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외모에 대해서는 메이크업 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보고도 있다(임창현, 양진희, 2015).

한편, 시각장애는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에 의해 시각 손상을 타 감각이 보상하고 대체할 수 있다(Amedi, Merabet, Bermppohl & Pascual-Leone, 2005). 특히, 음고(pitch) 지각에서 시각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절대 음고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시각장애로 인해 뇌에서 시각을 처리하는 후두엽이 뇌가소성에 의해 촉각이나 청각을 처리하도록 재배치 되었기 때문이다(Hamilton, Pascual-Leone, & Schlaug, 2004). 청각을 통해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는 매개로서 음악은,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차원의 의미 있는 소통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Rostohar, 2006). 실제로, 음악을 개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통 수단(조운정, 이해균, 2014; Robb, 2003; Wolffe & Sacks, 1997),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감정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다수 있다(Molloy-Daugherty, 2013). 한 예로, 시각장애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12개 시각장애학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총 25개의 프로그램 중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11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응답자 141명 중 70명(49.6%)이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음악 동아리(합창단, 실내악단, 보컬밴드 등)를 구성하여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전소연, 박혜영, 2016).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음악 활동을 즐기며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음악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뿐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율성,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혜영, 정현주, 박순희, 2015; 이보림, 2015). 즉, 음악의 심미적, 창조적, 표현적, 초월적 보상 경험(Aigen, 2005)이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로 역할하고 있다는 말이다. Baker와 Green은 2016년 연구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하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보상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저서(Baker & Green, 2017)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앙상블을 할 때 화음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음악적인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들이 음악 안에서 리듬의 변화나 소리의 고저, 강약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심미성과 정서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의 이러한 음악적 능력을 기반으로 국가가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교육하여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관현맹인이라는 제도는, 시각장애인들이 직업 음악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직접 발굴하여 교육하고 취업시키는 제도였다. 즉, 장악원, 서양의 왕립음악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채용하고 관리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 15세기부터 조선 말, 19세기까지 존속되었다(이승현, 송보나, 2015). 20세기 초에는 일제 강점기에 국가가 주도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을 안마와 침술을 중심으로 교육하면서, 음악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국가적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해방 이후 음악대학에 입학하여 피아노나 성악 작곡 등을 전공하는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음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관심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음악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1995년부터 특례 입학 제도(교육부, 1994년 8월 5일 장애인 중에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학 정원 외로 대학에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함)가 도입되면서 수준 높은 음악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늘어났다. 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 1990년대 말부터 시각장애인 음악대학 졸업자들 즉, 음악전공자들이 참여하는 연주단체

가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관현악을 전공한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10년간 지속된 정치,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나 장애인 관련 공연 등이 국가 지원으로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연주단체들과 함께 보컬밴드나 소규모 앙상블 등의 성장과 발전에 동력을 제공하였다.

이 같은 환경적 변화와 발전, 시각장애인 음악가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삶과 그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복잡하고 미묘한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 연구를 통해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의 개인적인 생애과정 경험을 사회적 경험으로 드러내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실천적 개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는 사회구조와 문화가 개인의 일상생활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효과적이다. 개인의 생애사 속에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개인 삶의 전략과 행위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개인이 살아온 사회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이효선,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만델바움(Mandelbaum, 1973)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여성시각장애 음악가들의 삶에서 주요한 영역이 무엇이며, 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전환점과 적응 전략은 무엇인가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그들의 관점으로 생생하게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생애사 연구

어떤 개인이 판단하거나 결정하고, 선택하거나 거부해 온 모든 경험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고,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어떠한 미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가 주목받아 왔다(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life history)는 개인의 삶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구조화된 자기상인 동시에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Mandelbaum, 1973). 또한, 생애사 연구는 전기적 글쓰기 형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삶의 과정과 경험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생애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환경과 문화 등을 맥락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osenthal, 2008). 즉, 개인의 경험과 선택이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 가치관 등과 함께 개인의 일상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시간을 축으로 한 변화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밝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삶을 생애사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생애를 관통하는 개인적 및 사회 환경적 변인들을 심층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삶의 어느 특정 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다른 질적 연구와는 달리, 생애사 연구는 시간성과 더불어 변화와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분석적 특징을 가진다. 생애사 연구는 생애 전체를 담아 낸 구술자의 이야기를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구술자의 삶의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정확할 뿐 아니라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이재인, 2004). 사회과학분야에서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델바움(D. G. Mandelbaum)은 생애사 분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순한 연대기적 분석을 넘어서는 다차원적 분석을 주장하였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과 생애과정을 거쳐 유지되는 지속성이나 변화의 특성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상자의 구술 내용을 삶의 영역(dimensions), 삶의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s)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Mandelbaum, 1973).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여성시각장애인(1급~3급)으로서 음악을 전공하고 현재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이다. 이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각장애 연주단체를 방문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 7명을 목적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으며(Park, 2017),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유나 씨는 9세 때 시력에 이상이 생겨 동네 병원에 갔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일반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시신경 위축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다. 시력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각장애인 학교 중학부에 다니기 시작했고, 현재는 38세(시각장애 2급)로 A 연주단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A 연주단 활동 외에 개인 공연도 많이 하고 있다.

성미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숙아망막증을 진단받고, 즉시 시각장애인 학교에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하였다. 음악선생님의 강력한 권유로 바이올린을 하게 되었고, 음악대학에 진학하여 전공 공부를 마쳤다. 현재는 39세(시각장애 2급)로 B 예술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자주 들려 도움을 주긴 하지만, 따로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다.

지영 씨는 망막색소변성으로 실명한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 학교 밴드부에서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음악대학에 진학하여 플루트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40세(시각장애 1급)로 A 연주단에서 연주하고 있다.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개인 지도하면서 남다른 보람을 느끼고 있다.

나정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시각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 때문에 학업을 몇 년간 중단하였고, 시각장애인 학교 중학부에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다. 현재 45세(시각장애 1급)로 C 연주단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여진 씨는 녹내장으로 실명한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국내 음대를 거쳐 외국 유학까지 마친 탁월한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39세(시각장애 1급)로 D 앙상블을 이끌면서 앙상블 연주, 개인적인 공연 외에도 많은 전공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은영 씨는 출산 때 의료사고로 실명한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다. 따로 음악을 배우거나, 전문가로부터 레슨을 받은 적은 없지만, 고등학교 시절 각종 대회에 나가 여러 차례 수상함으로써,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음악대학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32세(시각장애 1급)로 보컬밴드 E에서 리드보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수연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녹내장이 발병하여 중학교 무렵 실명한 후천성 시각장애인이다. 취미로 피아노를 치다가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보컬밴드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31세(시각장애 1급)로 보컬밴드 F에서 키보드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3.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체로 참여자들이 지정하는 장소를 연구자가 방문하여 이루어졌고, 추가 질문이나 참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화를 통한 일부 인터뷰도 시행하였다. 참여자 1인당 평균 2~3시간씩 3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연구자의 필요 혹은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보충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보완하였다.

수집한 인터뷰 자료는 만델바움(1973)이 제시한 3차원 분석틀인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s)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뷰 전사 자료를 토대로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고 핵심 사건을 추출하였으며, 주제 간의 유기적

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텍스트의 재구성을 반복하였다. 우선, 삶의 영역에서는 어머니, 선생님, 음악 단체 등, 참여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전환점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장애 수용 및 극복의 과정과 음악을 선택하면서 경험하게 된 전환의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적응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음악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을 밝히고, 이러한 원천을 바탕으로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힘겨운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정책적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같은 분석을 기초로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 7명의 생애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8개의 공통 주제를 도출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수집한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동료간의 협의(peer debriefing), 연구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였다(Stemler, 2001). 우선 연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실시한 동료간의 협의에서는, 사전 예비조사(pilot test)차원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 검증을 위한 표본 추출은 전체 내용의 10% 또는 20%(Wimmer & Domnick, 1997)로 검증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전체 내용의 20%로 신뢰도 검증을 받았고, 검증은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전문가가 실시하였다. 1차로 평가자 간의 검증 결과 후 불일치가 발생한 유목에 대해서는 평가자와 연구자가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평가자와 2차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92.5%의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ing)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김수연, 김경숙, 2006). 이에 본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 등을 연구 참여자 일부에게 메일로 발송한 후,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과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의 내용을 연구 참여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분석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삶의 영역

생애사 연구에서 삶의 영역(dimensions)은 단순한 생활 터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현재까지의 삶을 이끌어 온 토대 혹은 근거를 말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관계 맺음과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문화 속에서 그들을 오늘에 이르게 한 삶의 영역은 어머니, 선생님, 음악 단체로 분석되었다. 이 3개의 영역은 현재까지의 삶을 인내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자기 실존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게 한 기본 동력이었다.

1) 어머니

어머니는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혹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안식처였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성장하고 음악가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고 싶었지만, 현재 완전히 독립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었다.

"갑자기 악보를 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연주단에서 악보 점자로 옮기는 게 늦어지면 우리 쓰는 거 시각장애인 사이트 메일로 악보 보내 놓고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악보 외워 오라고 막 문자 오거든요, 그러면, 별수 있나요? 어머니께 전화하고 좀 도와 달라고 그래요, 오셔서 밀린 청소며 빨래며 밥이랑 반찬들까지 다 해주고 가시고 그래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러지요," (나정)

"엄마가 절 혼자 키우셨어요,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아니 유학 갔을 때도 엄마가 함께 가서 늘 도와주셨는데, 난 우리 엄마한테 내가 너무 무거운 짐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음악 하면서 먹고 사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아직 독립하지 못한 게 부끄럽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주위에서는 절 마마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릴 전해 들곤 해요, 좀 씁쓸하죠," (여진)

"여자는 남자들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음악을 하면 무대에 설 때, 꾸미고 좀 예쁘게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못하니까 엄마 도움을 늘 받죠, 저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노래를 불러도 성악가가 아니라서 드레스

입기는 좀 그렇거든요, 손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전 마이크를 꼭 손에 들고 노래를 해요, 스탠드 마이크를 쓰면 소리가 컸다, 작았다 하는 것도 신경 쓰이지만, 사실 손이 더 어색해요, 웃도 장신구도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다 엄마 말씀을 참고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죠, 결국 나중엔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아직 혼자인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죠, 차라리 다른 일을 했으면 모르는데, 음악이라는 게 워낙에 그래놔서..." (은영)

그들에게 어머니는 성장기에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후원자였고, 성공을 향해 달릴 때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유일한 대상이지만, 아직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그런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성장기에는 물론 현재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또, 변함없는 지지자로서 참여자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역할하고 있었다.

2) 선생님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선생님(담임선생님, 음악선생님 혹은 레슨선생님)은 그들로 하여금 음악을 알고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한, 사실상 그들을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한 감사의 대상이자 희망의 뿌리였다.

"전 공부를 좀 못하는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음악을 해 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셨는데... 당시 학교에 봉사하러 오는 대학 언니들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걸 배우게 됐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제게 음악을 권하시지 않았다면, 난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그때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우시죠,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아직 살아 계신지 한번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참 죄 많은 제자예요 제가," (성미)

"매년 한 번씩 시각장애인들끼리 겨루는 무슨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 학교 음악선생님께서 저한테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셨어요, 음악선생님이 나서서 추천 해주시니까 내가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됐죠, 어떻게 내가 큰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조희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전체 앞에서 이름도 부르고 칭찬해주시더라고요, 기분 정말 좋았죠, 뭐 그게 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쭐하는 기분도 들고 힘들고 그럴 때도 그런 기억들이 뭐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유나)

"난 사실 음악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 아니 얼마나 이모 같은 선생님을 만났죠, 내 형편 아시고 레슨비도 다른 학생들 반밖에 안 받으셨고, 레슨 시간도 다음 학생이 오기 전까지는 2배씩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대학 입학했을 때는 전공생이 귀로 듣고 클래식 작품을 연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점자 악보를 직접 익혀서 과제곡을 찍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연주단 들어와서 첫 공연할 때, 모셨는데, 소리 너무 거칠게 낸다고 그러다가 제대로 배운 거 다 잊어버리겠다고 막 혼내시고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드리는데, 늘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죠." (지영)

이처럼 참여자들의 선생님은 초등학교 시절 처음 바이올린을 해보라고 권유한 담임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 참여자에게 '넌 음악에 소질이 참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해 준 음악선생님, 입시뿐 아니라 대학 시절 손수 점자 악보까지 만들어주면서 진심으로 도와준 레슨 선생님. 그분들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로서의 고단한 삶에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가족과 같은 선생님,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음악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지해준 삶의 멘토였다.

3) 음악 단체

음악 단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음악가로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감과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는 실질적인 삶의 영역이었다.

"올해는 이렇게 무사히 넘어갔는데, 내년엔 또 어떻게 이 앙상블을 꾸려나가야 하나! 걱정이 많이 돼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너무 못 낫다는 생각도 들고, 매년 초에 있는 공모 사업에 열심히 계획서를 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우리 앙상블 식구들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고, 무슨 보족한 수도 없고,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요, 음악 하는 건 정말 좋은데, 혼자 할 순 없으니까, 이 앙상블이 오래오래 가야 할 텐데요..." (여진)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에게 음악 단체는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를 항상 느끼게 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얼마나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소속된 이 단체를 위해 나는 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 그저 기다리고 희망하고 기도하면서 남들에게 자신의 음악가로서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허망함을 경험해야 하는 영역이었다. 즉, 음악 단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시각장애인들에게 참으로 절실한 삶의 터전이였다.

"우리는 음만 외우는 게 아니라 활까지 외워야 되니까 진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에요, 곡 하나 완전하게 내 거로 만드는 데 아마 눈 보는 사람들보다 수 십 배는 할 걸요, 뭐 시각장애인이면 다 하는 건데, 나만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예술단에서도 잘 외우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도 들고요," (성미)

"공연이 어떤 땐 한 달에도 몇 번씩 있고, 없을 땐 계절 하나를 통째로 놀다가 보낼 때도 있어요, 특히, 겨울이 좀 힘들어요, 우리 밴드는 규모가 작아서 그래도 잘 나가는 편인데도 수입이 일정치가 없어서 좀... 그래도 연습 때마다 같이 만나서 치킨도 시켜 먹고, 각자 사는 얘기들도 나누고, 힘내자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수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라는 남다른 선택을 할 때에도 교내 특별 음악 활동(밴드부나 현악합주부 혹은 합창단)에서 얻은 자신감이 큰 영향을 끼쳤고, 악보 암기, 연습 참여, 이동 등 시각장애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그들이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 긍정의 추진력이 같은 장애를 가진 음악가들이 함께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음악 단체(예술단, 앙상블, 보컬밴드 등)라는 공동체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에게 있어 음악 단체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음악을 함께 하고 있다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현실적 의미를 넘어 절실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지향의 긍정성, 그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삶의 영역이었다.

2. 삶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turnings)은 만델바움(1973)이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전의 삶과 그 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전환의 계기, 의미, 중요성, 현재 삶과의 연관성, 현실에 직면하여 취하게 되는 다양한 선택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생애를 단순한 시간의 직선적 흐름의 차원이 아닌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순환구조로 분석한다. 음악가이기 전에 시각을 상실한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오늘도 그러한 장애를 매일매일 몸으로 겪고 살아야 하는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 그들에게 있어 장애의 수용과 극복 그리고 음악 선택은 삶의 전환의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인의 경험이나 선택 혹은 결정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의 관계, 한국이라는 특정 환경에서의 사회적 통념, 음악가, 넓게는 예술가에 대한 편견 특히, 여성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조건들과 직,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삶의 맥락에서 장애

수용과 극복 그리고 음악 선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1) 장애 수용과 극복: 그 끝없는 존재 확인

장애 수용과 극복은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2개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장애를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그들이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맞닥뜨리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존재 확인의 문제이다.

"전 태어날 때부터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뭔지 전혀 몰라요. 다들 저 같은 줄 알았죠. 산부인과에 그날 의사가 없어서 간호조무사가 제 출산을 도왔는데, 아마, 참 운이 없었죠. 동생 태어나고 그 아이랑 제가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서는 다 저랑 비슷한 아이들이니까 같등이나 고통, 슬픔 이런 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음악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지금은 그냥 참으면서 살아요. 눈물 날 때, 울컥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하고 혼자 울 때도 많고, 난 수용은 잘 모르겠는데, 극복이라는 말은 잘 와 닿지 않아요."
(은영)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여서 병원에 갔는데, 녹내장이라고 했어요. 수술을 일곱 번이나 받았는데, 다 성공하지 못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볼 빛도 못 보게 됐어요. 말 그대로 전맹이 된 거예요. 보통 그 나이가 사춘기라고들 하는데,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게 되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반항하고 그랬죠.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안 보인다는 게. 근데, 어찌겠어요. 시각장애인이 돼버린걸. 죽지 않으려면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저는 절 보고 장애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장애가 뭔지 알고 극복이라는 뜻이 뭔 줄이나 알고 저러나 싫어요. 아니면 내가 극복이라는 뜻을 잘 모르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해요. 장애? 매일매일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찌면 하루하루 수용하고 극복하는 게 장애가 아닐까요?"
(수연)

참여자들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보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 환경, 문화, 가치관, 사회적 통념 등, 한정된 조건 속에서 대부분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음악을 선택하여 타인들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개척해야 했던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 때로 그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선택했으므로, 다른 여성 시각장애인들보다 더한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현재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발걸음에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겨내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장애 수용과 극복은 순간순간 닥쳐오는 삶의 전환 점이고, 지금도 인내하며 지켜내야 하는 실존적 과제이다.

2) 음악 전공 선택: 불안이라는 갈등을 희망으로 해소해주는 긍정의 샘

음악은 본 연구 참여자들이 남과는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 토대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여성시각장애인들이 선택하게 되는 안마사나 특수학교 교사, 복지관 직원이 아닌 음악가라는 직업은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며,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한 중단 없는 지향의 발걸음이다.

"처음에 음악 한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도 담임 선생님도 많이 반대하셨어요, 내가 그때까지 죽 공부를 잘했거든요, 따따라를 왜 하느냐면서 거의 정신 나간 아이 취급을 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다 날 위해서 그러셨다고 이해는 되지만, 그때 참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그랬지요, 지금도 늘 불안하고 이런 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음악이라는 것이 참 나만의 충분한 어떤 세계, 나만의 독특한 영역,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랄까, 내가 완성되는 느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여진)

"곡 하나 다 외워서 함께 연습하고, 음악이 음악같이 만들어지면 뭐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큰일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학 다닐 때는 악기도 너무 싸고, 또 누구랑 같이하는 게 아니라 혼자 실기 레슨 받고 시험 치고, 음악을 좋아서 하긴 했지만, 사실 별로 즐겁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술단에 들어와서 이렇게 합주를 하니깐 음악이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연주 듣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기쁨이고 보람이기도 하고... 음악 안 했으면 내가 뭐로 청중들께 이런 감동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불안하고 이게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음악 잘한 것 같아요." (지영)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음악을 자신의 길로 선택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는 삶은 기대나 긍지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직면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미래를 바라보며 곳곳이 살아갈 수 있는 것에는 음악만이 갖는 특별한 힘이 있다. 참여자들은 인터뷰에서 '온전한 자신만의 세계',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참다운 성장', '그 어떤 일을 했더라도 경험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는 큰 감동', '연습하면서, 연주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발견하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만족감' 등을 구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에게 음악 선택은 생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단순한 전환점이기라기보다는 순간순간 자신이 결정하고 매진해 온 선택에 대한 끝없는 확인이자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게 하는 긍정의 샘이다.

3. 적응

적응은 삶의 과정이며, 변화와 연속성을 포함하는 진행형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그래도'이다. 이는 그 앞의 진술을 보류하고, 그 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즉, "지금은 그렇다 해도", "현실은 그렇지만", "오늘의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해석될 수 있다. 음악을 선택한 여성시각장애인들이 '열악한 사회 환경에서 견뎌 내고', '장애인 음악가로 살아 내며', 궁극적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통해 "나의 길"을 찾는' 과정은 음악을 도구로 그들이 오늘의 사회 환경, 문화, 통념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는 힘겨운 여정이다.

1) 열악한 환경에서 견뎌 내기: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적응의 전략은 '견뎌 내기' 혹은 '버티기'이다.

"대중가수나 TV 연기자하고는 달라도 음악 하는 사람들도 연예인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러니까 큰 무대 설 때는 미용실도 가고 드레스도 따로 빌려 입고, 뭐 때마다 사 입을 쓴 없으니까, 어찌 보면 맨날 환상만 좇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게 없고 항상 불안하고 그런 거지만, 그 느낌 있잖아요, 무대에서 박수받을 때 그 황홀함... 시간 따지고 수입 따지고 그러면 이거 못 해요, 여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영향을 끼치고, 여기저기서 와 달라고 연락 오고 그러면 어떨 땐 착각에 빠져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으쓱하고 그런 게 있죠, 음악이 아니 연주라는 게 사람을 홀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리만 잡히면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겠다 뭐 이러면서 그때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견뎌 내는 거죠," (유나)

"사실, 여자들을 약자라고 하잖아요, 장애인도 약자고, 그런데 난 여자면서 장애인,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장애인들 중에도 제일 안 됐다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여자로서 딸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음악을 내가 선택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멋진 인생, 음악가로서 여자로서 그런 인생이 펼쳐지겠지, 이런 꿈을 안고 참으면서 살아요," (나정)

참여자들은 사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같은 환경적 어려움이 쉽게 해소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고, 남들과 달리 음악을 선택하여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현실 직시, 상황 판단, 냉철한 자기 분석 등과 같은 실질적 맥락보다는 의지나 꿈, 목표나 계획, 가능성 혹은 기대 등과 같은 불확실하지만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치 혹은 소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가장 낮은 현실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미래의 성취를 꿈꾸는 그들. 음악은 그들을 견뎌 내게 하는 내적 에너지로 역할하고 있었다.

2) 장애인 음악가로 살아 내기: 정체성의 혼란

'나는 시각장애인 음악가인가?', 아니면 '나는 음악가이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인가?'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삶 전체를 통해 던지는 질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음악가이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여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로 살기를 강요한다.

"내가 음대 4년 다니고 외국에서 유학도 했는데, 사실 남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웬만큼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음악가로 보다는 시각장애인으로 먼저,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서도 저만큼 하면 꽤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속 상하는 일이지요," (여진)

"몇 년 전 일이에요, 저희 공연에 오신 분께서 공연 끝나고 저한테 진짜 안 보이는 거 맞느냐고 물어보세요, 참 어처구니없었죠, 무대에 나갈 때도 안내하는 분 팔 잡고 나가고, 노래할 때도 제가 알기론 비장애인 가수들보다 제가 훨씬 움직임이 적고, 엄마 말대로 하면 많이 어색하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그래서, 저희 공연에 왔던 제 보는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애네들 말이 노래부르고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가수, 이용복 씨처럼 선글라스를 끼면 몰라도 별로 뚜렷하게 표시가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럼, 선글라스라도 낄까?" 하고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음악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각장애인으로, 무대에서 불쌍하게 보여야 박수도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날 좀 많이 울었어요," (은영)

"음대 나오고 예술단이랑 일본도 갔다 오고 했는데, 내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주목받고 연주 기회도 더 있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대학 친구들 중에 아직 음악하면서 사는 애들 몇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안 보이면서 음악 하는 게 힘들기는 해도 또 안 보이니까 뛰어난 실력이 사실 아닌데도 무대에 서고 그런 점도 있죠. 시각장애인 연주자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보이면서 음악 했으니까 이만큼 인정받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성미)

연구 참여자들이 뛰어난 연주력이나 내세울만한 학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취 혹은 이름 속에 이러한 사회적 판단이나 평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느끼기 때문이다. 추구하고 정진해 온 자신의 모습과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자신의 위치가 다른 데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 그것은 여성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음악가로서 광범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사회의 환경적, 문화적, 통념상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실제로 그러한 사회적 자리매김에 바탕을 두어 일정 부분 수혜를 누려온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실익과 지향 속에서 고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오늘에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이러한 혼란이 그들의 음악가로서의 성장에 추진력으로 작용해 온 측면이 있다. 음악을 감상하는 청중들에게 그 음악의 순수한 음악적 완성도 못지않게 그 연주자 혹은 가수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이유. 예술 작품 향유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러한 특수한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될 때,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정체성 혼란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 활발한 음악 활동을 통해 '나의 길' 찾기: 무대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

무대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참다운 삶의 현장이자 진정한 음악가로서 자신을 확인하는 역동의 장소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양원을 방문해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계시는 곳 있잖아요. 큰 방 아니 거실 같이 생긴 데였는데, 무대도 없고 해서 우리들은 접이식 의자 놓고 한쪽 벽면에 앉고 어르신들은 우리 맞은편에 앉고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정말 거짓말 좀 보태면 무릎이 닿을 것 같이 좁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어르신들께서 "잘 한 다아! 좋다아아!"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주시는데, 참 연주할 맛 나더라고요. 공연 끝난 다음에 우리들이 어르신들 드시라고 준비해 간 빵이랑 우유, 주스 이런 걸 먹으라고 주시고, 나갈 땐 신발도 찾아주시고, 그래서 참 나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공연 다니면 청중들께 우리가 드리는 감동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청중들한테서 받는 기쁨, 보람 뭐 이런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하는 재미가 따로 있는 거죠." (지영)

"저희 작년 공연 때 애긴데, 무슨 장애인 협회 15주년인가 20주년인가 축하 행사였어요, 사람들이 꼭 차서 음향 장비를 사용하는데도 소리가 답답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한 40분 공연할 예정이었는데, 청중들이 다섯 번이나 앙코르를 해서 1시간을 넘겼어요, "정말 오늘 뿌리를 뽑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대단했죠,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 치고, 환호하는 청중들 보면 음악이 참 멋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하고 있는 제가 대견하고 그래요," (수연)

참여자들은 그들의 음악이 듣는 이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줄 뿐 아니라 음악 행위를 하는 그들 자신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선사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청중들 반응과 공연 후의 다양한 피드백은 그들이 고난을 이겨 내고, 미래를 향한 빛나는 꿈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다. 내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음악을 계속하고 있는지, 내가 지향하고 있는 최종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무대.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은 이 무대에서 활발하게 연주하는 적극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나의 길'을 찾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 7명의 삶에 대한 구술을 통해, 그들의 생애에서 삶의 터전이자 성장의 발판이며 이루어내야 할 꿈으로 자리매김한 음악의 역할과 과정을 심층적이고 맥락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만델바움(Mandelbaum, 1973)이 제시한 생애사 분석 방법을 틀로 하여, 삶의 영역(dimensions), 삶의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s)을 각각 분석한 결과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삶의 영역은 어머니, 선생님, 음악 단체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그들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이고, 지금까지의 음악가로서의 생을 지탱해 준 자원이며, 미래를 향한 꿈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어머니는 성장기에는 든든한 후원자였고, 아직 꿈을 다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는 그들이 끝내 성공하여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악 단체는 음악을 선택할 때와 힘들고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음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하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음악 단체 활동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소속감 및 만족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전소연, 박혜영, 2016; Baker & Green, 2017; Park, 2017). 실제로, Baker(2014)의

연구에서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은 학교생활을 회상하면서, 정안인들과의 음악 활동 참여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시각장애로 인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의 일환으로써 큰 이점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Baker와 Green(2016)의 연구에서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현장 모두에서 음악은 다측면적(multifaceted)으로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음악 교사가 시각장애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점자악보, 테크놀로지 활용 기보법 등의 교수학적 기술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삶의 전환점은 장애 수용과 극복, 그리고 음악 선택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장애의 수용과 극복은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생애에서 어느 특정 시점에 일어난 변화나 어떤 계기로서의 삶의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순간마다, 매일 그들이 부딪히고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끝없는 존재 확인의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 환경, 문화, 가치관 및 사회적 통념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인내하며 지켜내고 있는 실존적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전환점의 다른 한 축인 음악 선택은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긍정의 샘으로 역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전한 자신만의 세계, 연주하며 발견하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쁨, 칭찬과 호응하며 느끼는 큰 감동 등,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음악 선택은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해 가는 힘겨운 여정의 목표를 음악적 성공이라는 지향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결정의 순간들을 특별한 자신감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중도시각장애인이 음악하기를 통해 삶에 활력을 제공받고,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박혜영(201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청각이 고도로 발달한 시각장애인에게 음악 경험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율성,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 사회적 연결고리 혹은 공감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이보림, 2015),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로서의 적응은 열악한 사회 환경에서 견뎌 내기, 장애인 음악가로 살아 내기, 활발한 음악 활동을 통해 '나의 길' 찾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음악가로 살아가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것은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가 아니라 '음악가'이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였다. 즉, '음악적 성장을 통한 '나의 길' 찾기'라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삶의 기쁨이며 보람인 음악,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살게 해주는 음악은, 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장애의 수용과 극복을 넘어 음악가로서 일반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Baker & Green, 2017). 다시 말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는, 음악가이면서 시각장애인

여성인 자신의 길 즉, '나의 길'을 찾는 과정이었다. 이는 그들이 음악하기를 통해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러한 소통을 매개로 그들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장애 일반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모델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해 나가며 진정한 음악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뿌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어머니 혹은 선생님이 감당한 헌신과 희생에 닿아 있었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 하나뿐인 시각장애인 제자를 위해 점자 악보를 직접 익혀 수업 자료를 만들어준 것은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으로 각인되었다. 향후에는 여성시각장애 음악가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 혹은 선생님이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겪는 성장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심도 있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음악가의 길을 걸어왔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열악한 사회 환경에서 살아 내고, 제약과 불평등을 인내하며, 극심한 차별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지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따뜻한 관심이나 배려와 같은 복지적 슬로건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육적, 제도적, 직업적 접근에 바탕한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여성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 환경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여성이라는 현실과 장애라는 제약으로 인해 포기되거나 좌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장애인 음악가들이 폭넓은 프로그램을 다양한 무대에서 뛰어난 수준으로 재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을 제안한다. 이는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 부여이며, 진정한 예술인으로서 그들이 자신의 사회적 실존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31세에서 45세까지의 여성시각장애인 음악가 7명을 목적표집 하여 이들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국내 여성시각장애인 가운데는 본 연구에 참여한 현악 연주자, 관악 연주자, 피아니스트, 가수, 건반 연주자 외에도 작곡가나 편곡자 등, 다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미래의 음악가를 꿈꾸며,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성시각장애인 음악도들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장르와 폭넓은 연령층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강호 (2012). 시각장애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각장애연구**, 28(4), 43-59.
- 김수연, 김경숙 (2006). 성과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중학생의 체육수업 정서체험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0(3), 81-99.
- 김성희 (2018). 여성 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63, 6-15.
- 김영일 (2010). **시각장애인복지론**. 파주: 집문당.
- 박혜영 (2019).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하기를 통한 삶의 적응 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9(1), 25-42.
- 박혜영, 정현주, 박순희 (2015). 전맹 대학생과 정안 대학생의 음악 감상 경험에 대한 언어적 서술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4), 149-171.
- 안준환, 이순중 (2007). 시각장애인을 위한 컬러 인식 점자 시스템 개발 연구. **감성과학**, 10(4), 571-581.
- 이보림 (2015). 시각장애인에게 음악하기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 '영광칸투스 시각장애인 중창단'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23, 137-156.
- 이성은 (2009).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27, 209-242.
- 이승현, 송보나 (2015). **블라인드 뮤지션 : 마음으로 세상을 연주하다**. 서울: 예술.
- 이재인 (2005). 서사유형과 내면세계 : 기혼여성들의 생애이야기에 대한 서사적 접근. **한국사회학**, 39(3), 77-119.
- 이효선 (2007). 생애사 연구를 통한 중도장애인의 삶의 재구성 : 슛제(F. 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299-330.
- 임창현, 양진희 (2015). 시각장애인의 메이크업 실태와 메이크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아시아뷰티화장품학술지**, 13(5), 569-577.
- 조윤정, 이해균 (2014). 시각장애학교 음악특기적성교육 참여에 따른 음악수업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341-361.
- 전소연, 박혜영 (2016). 시각장애 연주단체 공연 관람이 경찰공무원의 장애인식과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 **시각장애연구**, 32(4), 137-152.
- 한경리 (1994).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실태와 개선방향: 대구직할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 함동혁, 김정현 (2004). 시각장애학교 여가활동 프로그램 실태와 만족도 분석. **시각장애연구**, 20, 91-117.
- 홍승아, 이미화, 김영란, 유계숙, 이영미 (2009). **일, 가족 양립 정책 의 국제 비교 연구: 정책 이용 실태 및 일, 가족 양립 현실**.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 황령희 (2003).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3(2), 21-43.

- Aigen, K. (2005). *Music-centered music therapy*. Barcelona Publishers.
- Alma, M. A., van der Mei, S. F., Groothoff, J. W., & Suurmeijer, T. P. (2012).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 of visually impaired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21*, 87–97.
- Amedi, A., Merabet, L. B., Bermpohl, F., & Pascual-Leone, A. (2005). The occipital cortex in the blind: Lessons about plasticity and vi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6), 306–311.
- Baker, D. (2014). Visually impaired musicians’ insights: Narratives of childhood, lifelong learning and musical participation.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31*(2), 113–135.
- Baker, D., & Green, L. (2016). Perceptions of schooling, pedagogy and notation in the lives of visually impaired musicians.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38*(2), 193–219.
- Baker, D., & Green, L. (2017). *Insights in sound: Visually impaired musicians' lives and learning*. Routledge.
- Garaigordobil, M., & Bernaras, E. (2009). Self-concept, self-esteem,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i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visual impairment.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2*(1), 149–160.
- Hamilton, R. H., Pascual-Leone, A., & Schlaug, G. (2004). Absolute pitch in blind musicians. *Neuroreport, 15*(5), 803–806.
- Jessup, G. M., Cornell, E., & Bundy, A. C. (2010). The treasure in leisure activities: Fostering resilience in young people who are blind.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04*(7), 419–430.
- Mandelbaum, D.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 Molloy-Daugherty, D. (2013). Rhythmic auditory-motor entrainment of gait patterns in adults with blindness or severe visual impairment.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 Park, H. Y. (2017). Finding meaning through musical growth: Life histories of visually impaired musicians. *Musicae Scientiae, 21*(4), 405–417.
- Robb, S. L. (2003). Music interventions and group participation skills of preschoolers with visual impairments: Raising questions about music, arousal, and atten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40*(4), 266–282.
- Rosenthal, G. (2008).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Eine Einführung*. Weinheim, Germany: Juventa.
- Rostohar, J. W. (2006). The effects of a multiphase music therapy intervention on the acquisition of social skills among pre-schoolers with visual impairments: Two case studies.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MO.

- Stemler, S. (2001). An overview of content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7(17), 137-146.
- Wimmer, R. D., & Dominick, J. R. (1997).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3rd ed.)*. Belmont, CA: Wadsworth.
- Wolffe, K., & Sacks, S. Z. (1997). The lifestyles of blind, low vision, and sighted youths: A quantitative compariso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1, 245-257.

Life Histories of Finding 'My Way' through Music Activities by Female Musicians with Visual Impairments

Park, Hye Young

Kos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ives of female musicians with visual impairments (FMVI) via the life history method. For this,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FMVI (aged from 31 to 45) residing in S and G province. The data analysis considered three facets of life history proposed by Mandelbaum: dimensions, turning points, and adaptations. As a result, among three dimensions of life, most participants suggested that mothers, teachers, and music groups are the most important dimensions of their lives. In regards to turning points, choosing music has enabled them to accept and overcome their impairments. With respect to adaptation, the participants appear to have constantly strived for becoming as FMVI, not as visually impaired female musicians, through vigorous musical activities. This implies that it needs to be considered practical, long-term public support for them to achieve their final goals, that is, 'finding my way through music' in areas of social systems, policies, and education.

Key Words : visually impaired woman, musician, life history, Mandelbaum, music activity

논문 접수: 2019. 05. 09 심사 시작: 2019. 05. 09 게재 확정: 2019. 06. 20